

LG정유, 중국 BTX 투자 “검토단계”

AUS 가스전 탐사도 실무차원 검토일 뿐 ... 기업공개 결정된 것 없어

LG-Caltex정유는 10월17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유전 탐사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중국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현재 실무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LG정유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고르곤(Gorgon) 지역 가스전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중이며, 중국 칭다오(靑島) 지역 Aromatic 공장 건설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공개와 관련해서도 “Caltex가 기업공개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페널티를 물더라도 연내 기업공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G정유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주들의 기업공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기업공개 연기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0/20>